

네가 딱 한번 음악을 들려준 적이 있다

다음 날부터 내 귀가 조금씩 자라나

누가 떠나는 소리를 잘 듣고

눈이 왜 어두워지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았네

귀가 입을 덮기 직전에
나는 인사할 수 있었지

늘어가는 빛에게, 고마워

유리 이후
After glass

유리에게 두 번은 없어

흩어지거나
흩어지지 않기로 했을 뿐

우리는 약속을 하나 하자

유리를 뚫지 않은 총알
총알의 마음을 권 유리처럼
헤어지지 않거나

이 편지를 남김없이 태우기

불에서 살아남은 이야기가
모르는 입술을 빌려 노래하고

말이 되면서
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각색하느라
누구의 밤이 줄어드는지

나는 본 적이 있어

떨어지던 걸 잊은
창문들
옛날 이야기를 하다
닫는 것도 잊고 잠든 네 입술로

끓주린 새떼
탄식
창문들

아침까지

기억나자마자
차례대로 몸을 빠뜨리는 광경

그러니까 약속해

버린 손으로
구하지 않기로